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신 현 배 | 시인, 아동문학가
(4201708@hanmail.net)

하천에 얽힌 옛이야기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강을 건넌 주몽

만주 송화강 근처의 가섭원 땅에 동부여의 금와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금와왕은 사냥을 나섰다가 태백산(백두산) 남쪽 우발수(상평지)라고도 함)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은 강가를 헤매 다니고 있었습니다.

금와왕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사는 누구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웅심산(백두산) 밑 압록강가에 사는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하백이라면 물을 다스리는 신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백의 딸이 무슨 일로 이 외딴 곳을 혼자 헤매고 있는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이 곳에 묻혀 꼼짝없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 남자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입니다.”

“아버지의 노여움을 사서 이 곳으로 귀양을 온 게로구나?”

“예.”

“그렇다면 네 남편 해모수는 어디 있느냐?”

“제가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 버렸습
니다.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런,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아무리 귀양을 왔기로서
니, 이런 곳에서 여자의 몸으로 혼자 살 수는 없지.”

금와왕은 사연을 듣고 나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래서 유화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 살 집을 마련해 주
었습니다.

유화는 몇 달 뒤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알이 얼마나 큰지,
닷 되들이 그릇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금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알을 낳다니, 해괴한 일이로구나. 그 알을 돼지에
게나 던져 주어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알을 돼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
러자 돼지들은 알을 먹지 않고 소중히 간수하는 것이었습
니다.

신하들이 이 일을 보고하자 금와왕은,
“괴이하도다. 그 알을 길바닥에 버리도록 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즉시 알을 길바닥에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
에도 괴이쩍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소와 말이 그 알
을 피해 떨찌감치 비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들판에 내다 버려라.”

신하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 물
러서서 버려진 알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알 주위로 새들이
모여들더니, 날개로 덮어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보고를 받은 금와왕은 알을 가져다가 깨뜨리라
고 지시했습니다.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하 하나가 쇠망치로 알을 힘껏 내
리쳤습니다. 그러나 알은 왕을 비웃듯이 금 하나 가지 않았
습니다.

금와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보통 알이 아니구나. 이 알을 어미에게 돌려주어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유화 부인에게 알을 돌려주었습
니다.

유화 부인은 그 알을 이불에 꼭 싸서 따뜻한 방 안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잘생긴 남자 아이 하나가 알을 깨고 나
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찌나 총명한지, 태어난 지 한 달도 못
되어 벌써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파리들이 귀찮게 굴어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저를 위해 활과 화살을 가져다 주세요.”

아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활과 화살을 구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날부터 파리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파리를 보
는 족족 활을 쏘아 맞히는데, 백발백중의 귀신같은 솜씨였
습니다.

이 솜씨를 보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
다.

“오늘부터 네 이름은 주몽이다. 주몽이. 알겠지?”

당시에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였다고
합니다.

주몽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새 어깨가 떡 벌어진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주몽은 천하 제일의 활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이 재주
를 능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몽
이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수군거렸습
니다.

“주몽이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놈은 알에서 나왔
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이고 왕 자리에 앉을지
도 모르지.”

일곱 왕자는 주몽의 재주가 워낙 뛰어나자 불안해했습니
다. 그들은 주몽을 없앨 궁리를 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대소가 금와왕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마, 주몽이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답니다. 일찍 죽여



없애는 것아…….”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그까짓 허튼 소문을 믿는단 말이나? 주몽이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사람이 아니다.”

금와왕은 큰아들의 건의를 물리치고,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몽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은 혀에 바늘을 꽂아 두어 일부러 못 먹게 만들고, 나쁜 말들은 잘 먹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좋은 말은 여위어 뼈만 앙상해졌고, 나쁜 말들은 피동피동 살이 쪼습니다.

얼마 뒤, 금와왕이 마구간에 들렀습니다. 금와왕은 거의 모든 말이 살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했습니다. 금와왕은 주몽에게 상으로 여윈 말을 주었습니다.

이 무렵 주몽은 장가를 들어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루는 유화 부인이 주몽을 불러 말했습니다.

“왕자들과 여러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이 곳을 떠나거라. 네가 가진 재주와 지혜라면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몽은 그 날 밤 떠나기로 하고 세 청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이, 마리, 험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주몽을 따르는 동지들이었습니다.

주몽은 떠나기 전에 칼을 두 동강 내어, 한 동강을 어느 곳에 감춰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뒤틀날 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거요. 아들을 낳으면 나한테 보내시오. 내가 일곱 고개와 일곱 골짜기가 진 돌 위의 소나무 사이에 감춰 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 가져와야 하오. 그래야만 아들로 인정할 거요.”

주몽은 작별 인사를 끝낸 뒤 마구간에서 말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금와왕으로부터 받은 말이었습니다. 주몽은 혀에 꽂힌 바늘을 빼내, 여윈 말을 기름진 말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몽은 세 청년과 함께 말을 타고 궁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남으로 남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새벽녘쯤 왕자들은 주몽이 달아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몽을 뒤쫓아라.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을 거다.”

왕자들은 병사들을 이끌고 주몽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몽 일행은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압록강 동북쪽에 있는 업체수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배 한 척 없었습니다.

주몽 일행이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주몽이 저기 있다!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 왔습니다. 왕자들과 병사들이었습니다.

주몽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주몽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느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해모수의 아들이니 하느님의 손자 아남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입니다. 저를 위해 다리를 놓아 주십시오.”

기도를 끝내자 갑자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와 자라들이 떼 지어 나타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주몽 일행은 재빨리 그 위를 걸어 강을 건넜습니다.

추격해 온 병사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건너자.”

대소 태자가 이렇게 말하며 강가로 다가섰습니다.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흩어져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빨싸, 이 일을 어찌 한담.”

대소 태자는 강 건너편에서 멀어져 가는 주몽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주몽은 유유히 강가를 벗어나 졸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기

원 전 37년).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칭하고, 자신의 성을 고씨라 했습니다.

그 후 주몽은 기원 전 36년 비류국 송양왕의 항복을 받았고, 기원 전 34년에는 성곽과 궁궐을 지었습니다. 또한 기원 전 33년에는 행인국을 정복했으며, 기원 전 28년에는 북옥저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기틀을 잡아갈 무렵, 동부여에서 아들 유리가 찾아왔습니다.

유리는 일곱 고개와 일곱 골짜기가진 돌 위의 소나무 사이에 감춰 둔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곱 고개와 일곱 골짜기는 일곱 모난 주춧돌을 말합니다. 자신의 집 기둥이, 일곱 모난 주춧돌 위에 세워진 소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유리는 그 기둥 위에 난 구멍에서 아버지가 감춰 둔 칼 한 동강을 찾아낸 것입니다.

주몽은 유리가 바친 칼 한 동강을 자신이 갖고 있던 나머지 칼 동강과 맞춰 보았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오, 내 아들이 틀림없구나!”

“아버지!”

주몽은 유리를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찾은 아들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주몽은 기원 전 19년 마흔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유리는, 아버지의 시호를 ‘동명성왕’이라고 하여 그 업적을 기렸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의식을 가졌는데, 이 때 모든 부족이 한 자리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고, 주몽과 유화 부인의 넋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